

【특집 ·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정보기술 용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

김병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전산 용어 다시 말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용어는 이제 전문가의 담화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인의 언어 생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보기술 관련 기사가 주요 뉴스로 취급되는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면서 우리가 정보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 동안 우리 생활의 근간을 이루던 아날로그 기반의 문화 역시 이제는 디지털 문화로 대체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롭고 생경한 외래종 단어의 홍수를 경험한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삶의 양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언어적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와 충격에 대응하는 언어정책으로 이 새로운 세기에 대한 적응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 분야의 외국어를 우리 것으로 소화해야 하는 과제 뿐 아니라, 이를 남과 북이 공유하여 공통의 용어로 정보기술 교류를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작은 역할을 담당했던 전산 용어 순화 사업 및 남북간 정보기술 용어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남북한 정보기술 용어의 이질성과 동질성의 형편을 서술하며 나아가서는 남북한 용어 표

준화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남한의 정보기술 용어 표준화의 현황은?

남한에서 정보기술 용어의 통일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1992년부터 추진되었던 '전산 용어 순화 사업'(문화체육부 후원, 국어정보학회 주관)에서 시작되었다. 전산 용어의 순화 사업은, 이전의 용어 순화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래어를 적절한 우리말 용어로 대체하되, 한자어에 의한 조어를 지양하고 토박이말을 살려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자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표준용어화함으로써 정보기술 분야의 의사소통에도 보탬이 되고, 일반인의 정보화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당시 이미 한국공업규격으로 정보처리 분야의 용어들이 표준화되어 있었지만,¹⁾ 이 용어들이 일반적 언어생활에 별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고, 시중에는 여러 가지 전산용어사전들이 통일된 지침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편찬 원칙에 따라 용어를 번역함으로써 잘못 번역된 것이나 외국어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 적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용어의 혼란이 정보화 추진에 지장이 되는 요인으로 지적 받을 정도였다.

이로써 문화체육부의 후원 아래 국어정보학회가 주관하여, 1,700여 개의 실용 전산 용어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어 주로 토박이말 용어가 제안되었으며²⁾,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검토를 거쳐, 문화체육부·조선일보사·국어정

1) 한국공업규격(KS) 중 정보처리 분야의 용어는 KSC 5602와 5811~5830 및 5868 등으로 규격화되어 있다. 이 규격집은 ISO 2382 규격에 대응하여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제정된 규격 자체도 잘 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게다가 규격 자체가 ISO의 개정 속도를 뒤쫓아가지 못하는 등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이때 제안된 토박이말 용어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람쥐(mouse), 딸깍(click), 딸깍딸깍(double-click), 굳은모(hardware), 무른모(software), 글쇠판(keyboard), 내려싣기(download), 스펜(spreadsheet), 가로채기(interrupt), 풀그림(program), 여벌(backup), 불쑥(popup), 애초값(default value)

보학회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전산기 용어 검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조선일보』에 소개하여 일반인의 의견까지 수렴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국어심의회 전산기 용어 순화 소위원회와 국어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침내 1994년 3월에 『전산기 순화 용어집』으로 공포하였다. 이것이 어문 규범 및 용어의 최종 심의기관인 국어심의회를 유일하게 통과한 전산 용어인 것이다.³⁾

한편 용어의 표준과 관련된 국내의 여러 규정들이 서로 다르고, 이 분야의 외래어가 범람하는 가운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용어 통일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5년 7월부터는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국립기술품질원의 지원 아래, 한국통신기술협회 주관으로 ‘정보통신 용어 표준화위원회’가 구성되어 매년 한 차례씩 『정보통신 용어사전』을 출판하고는 있으나, 국가 표준규격으로 확정하지도 않았고, 또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전산 용어의 순화를 위한 노력과 표준화를 위한 공적인 절차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일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실 순화 용어는 토박이말을 정보화의 현장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에만 그친 감이 적지 않다. 국어심의회를 통과한 표준 용어라면 당연히 각종 교과서 편찬의 지침으로 활용되어야 했지만 관련 부처의 협조가 부족했고, 또 소위 ‘시장의 표준’과는 거리가 먼 용어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보편화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2. 북한의 정보기술 용어는 어떠할까?

남한에서 북한의 정보기술 용어가 어떠한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하였던 ‘전산 용어 순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고, 이때 최초

3) 이 사업을 주관한 국어정보학회는 순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이를 일반에게 보급하고자 일부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고 올림말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순화 용어 목록을 만든 다음, 사전적 뜻풀이를 덧붙이고 각종 목록을 보충하여 『우리말 전산용어 사전』(정음문화사, 1995)을 펴낸 바 있다.

로 접한 자료가 바로 북한의 『전자계산기 프로그램 용어사전』(과학백과출판사, 1986)이었다. 국판 124면으로 된 이 사전은 영어 올림말 순서로 편집되어 있으며, ‘전자계산기의 장치 부분에 대한 용어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작성자들을 위하여, 프로그램 기술 용어들을 기본으로’(일러두기) 올린 것이다.

이 사전의 용어들은 번역 자체가 잘 다듬어지지 않았고, 일본식의 용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북한 내에서도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전은 이런 점에서 본격적인 용어사전으로보다는 간략한 기본 용어집으로서, 표준화를 위한 시도로, 그리고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전산과학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북한에서 정보기술 용어의 국가규격화에 대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1994년의 제1회 ICCKL이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⁴⁾ 남한에서는 비록 정부 관련 부처의 후원을 받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학회가 주관이 된 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표준화 업무의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였고, 학술회의 기간 동안 남한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학자들의 태도에서 학술회의 결과를 국가 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 학술회의를 통해 정보기술 용어의 통일 작업이 상호 연구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북한에서도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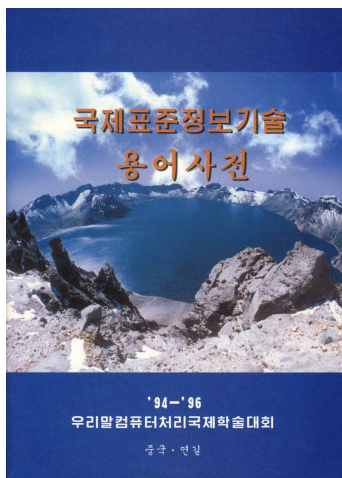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조선컴퓨터센터를 중심으로, 국제 규격인 ISO 2382 즉 국제 표준기구의 정보기술 분야의 용어 규격에 기초한 작업을 제안하고, 1995년의 ICCKL에 참가하기 전, 이미 ISO 2382 용어를 우리말로 옮긴 시안(정보처

4) ICCKL은 ‘우리말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 즉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Computerization of Korean Language’의 약자이다. 남한의 국어정보학회,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국의 연변과학기술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여, 남북한의 한글 정보처리 전문가들과 중국의 동포 학자들이 중국 연변에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컴퓨터에서의 한글 처리에 대한 기술과 표준 문제를 논의한 학술대회이다.

리용어 표준화 시안)을 만들었으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의 전문가들과의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하여 이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⁵⁾

북한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고유어 말다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시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유어를 살리는 것을 취지로 하였고, 특히 남한에서 토의안으로 제시한 ‘전산 순화 용어집’을 북한의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는 다른 새로운 번역어들이 제시됨으로써 북한의 정보기술 관련자들에게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1996년 제3차 ICCKL을 통해서 남북한이 정보기술 용어 표준에 합의하였고, 1999년에는 『국제 표준 정보기술 용어 사전』이 출판되어 북한의 각계 각층에서 이 표준을 사실상의 국가 규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



3. 남과 북의 용어들은 얼마나 그리고 왜 다른가?

그동안 적지 않은 수의 언어학자들이 남북의 언어적 이질성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꾸준히 연구해 왔고, 일반인들도 월남자들의 육성이나 남한의 TV에

5) ISO의 용어 규격에 대해서는 ISO의 홈페이지(<http://www.iso.ch/projects/project.html>)에서 검색할 수 있다.

6) 이에 대해서는 홍기호(‘남북한 국어 정보처리 표준화’, 전자신문, 1996.8.26.)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국제 표준 정보기술 용어 규격인 ISO 2382의 개정안을 반영하자는 제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 이 표준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 시청할 수 있는 북한의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의 언어적 이질성이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과장된 것으로 실제로는 단지 방언적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남북 교류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비록 어법과 정서법 및 용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하며, 상호 이해의 노력만 있다면 오히려 언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하나의 즐거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초점을 정보기술 분야로 한정해서 본다면 그렇게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 1992년에 전산 용어 순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앞서 말한 북한의 『전자계산기 프로그램 용어사전』을 분석해 본 결과 남한과 북한의 정보기술 용어는 37% 정도가 일치하고, 나머지 63%는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ICCKL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 양측이 제시한 용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SO 2382의 용어 1,852개 중 같은 것은 1,194개(64.5%), 다른 것은 658개(35.5%)로 나타나서 몇 차례의 교류 과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용어상의 차이가 엄연함을 알 수 있다.⁷⁾

사실 우리보다 많은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로 눈을 돌려보더라도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북경과 대만 그리고 홍콩의 정보기술 용어가 완전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세 지역의 정보기술 용어를 제공하고 있는 한 사이트⁸⁾에서는 최신의 상용 전산 통신 용어 597개를 중국어로 표시하고 있는데,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에서 세 지역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300개,

7) ICCKL을 통해 남과 북의 정보기술 용어를 통일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바로 남과 북의 언어 현상을 동시에 체험하고 있는 중국의 우리 동포 학자들이었다.

8) 홍콩의 孫澤華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영어 명칭은 'English Chinese Glossary of Computer and Network Communications Terms'이고, 중국어로는 '英漢 計算機及 網絡 通訊 技術 詞彙'이다. (<http://home.ust.hk/~lbsun/terms.html>)

홍콩에서만 사용하는 것 및 홍콩과 북경의 용어가 다른 것이 143개, 대만의 용어가 다른 두 지역과 다른 것이 144개, 그리고 대만과 홍콩이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북경의 용어와 다른 경우가 10개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절반 정도의 용어만 동일한 것이다. 적은 분량이기 는 하지만, 활용 빈도가 높은 용어들 이고 최근의 용어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세 지역의 정보기술 용어도 상당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⁹⁾ 게다가 이들 세 지역에서는 한자의 표기법이 달라서 대만과 홍콩은 번자(繁字)를 북경은 간자(簡字)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¹⁰⁾

분단의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서 유난히 정보기술 용어의 이질성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은, 공통 분모가 가장 적은 것이 바로 정보기술 분야라는 점이다. 정보기술 용어는 대부분 컴퓨터가 소개된 이후, 즉 시기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고 냉전적 상황이 계속되던 때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들이다. 다른 학문 분야 즉 전기공학이나 수학·물리학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공통 분모가 발견될 수 있으나, 정보기술 용어는 새롭게 등장한 것이 대부분이다.

아울러 남과 북은 정보기술 및 정보 기기들이 도입되는 경로가 달랐고, 이것이 용어상의 차이를 만든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남한은 대부분 영어권(주로 미국)에서 수입한 용어를 번역하거나 외래어로 사용하는 데 비해, 북한은 초기에는 주로 러시아에서 기술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근래에는 일본에서 수입된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물론 정서법의 차이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미 순화된 용어의 경우에는 북한과 남한의 용어가 정서법에

9)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computer에 대한 것이다. 북경에서는 주로 計算機라 하고, 대만(및 홍콩)에서는 대부분 電腦라 한다.

10) 홍콩의 Computer 학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ccts.cse.cuhk.edu.hk/>)에서는 'An Intelligent Database for Standard Chinese Computer Terminology' 즉 中國計算機學會에서 편찬하고 全國自然科學名詞 檢定委員會가 공포한 計算機科學技術名詞의 중국판과 홍콩판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의 차이만 보일 경우 의사소통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는 데 비해, 외래어는 어떤 경우 그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용어가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닌 어떤 특별한 이유로써 확고하게 달리 사용될 경우 더욱 문제가 되었다. 그 특별한 이유란, 남한에서는 ‘시장의 힘’이고 북한에서는 ‘권위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사실상의(de facto) 표준’ 즉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남한과 북한의 정보기술 용어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바로 ‘computer’의 표준화였다. 남한에서는 사실상 ‘시장의 힘’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라 말하고 더러는 ‘전자계산기’ 혹은 줄여서 ‘전산기’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표현이 여러모로 타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표준안으로 ‘전산기’를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의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계산기’라고는 하지만 간혹 ‘전자계산기’라는 표현도 보이기에 우리는 손쉽게 ‘전산기’에 합의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달랐다. 북한에서는 일보도 양보하지 않았다. 남한에서는 흔히 calculator를 ‘계산기’라고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를 무엇이라 하는지 궁금했고, ISO 2382-22에도 calculator가 올라 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해야 했다. 북한에서는 이를 ‘수산기’라고 한다. 우리는 ‘수산기’가 數算機인지 手算機인지 궁금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나 북한의 대표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남북한 간에 computer를 전자계산기로 표현하는 관습이 있다는 것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은 일체의 타협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고 여러 차례 반문했다. 결국 그것은 ‘권위의 힘’ 즉 최고 지도자의 지시 사항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¹¹⁾

11) 결국 computer는 ‘전산기’와 ‘계산기’로, calculator는 ‘계산기’와 ‘수산기’로 복수 표준화할 도리밖에 없었다.

4. 남북 용어 표준화 사업의 교훈은 무엇인가?

1994년에 열린 첫 번째 ICCKL에서 남과 북의 학자들은 정보기술 분야의 상호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하여 남과 북의 정보기술 분야 표준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정보기술 분야 용어의 표준화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한 이후 양측에서 꾸준한 연구와 정보 교류를 통하여 1996년 제3차 ICCKL에서는 정보기술 용어, 자판, 한글 코드 및 한글 자모순에 관한 통일안을 합의하게 되었다. 특히 정보기술 용어 분야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1999년에 『국제정보기술표준화사전』을 공동 편찬하여 출판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기까지 하였다.¹²⁾ 이것은 남북의 민간 학술 교류상 하나의 성공 사례이며 특히 다른 분야의 용어 표준화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실의 일차적인 초석이 된 것은 남과 북의 상호 존중의 태도 및 인내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ICCKL은 3년에 걸쳐 세 차례나 열릴 수 있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적지 않은 지원이 있었지만, 남쪽의 학자들이 대부분 자비를 들여서 회의에 참석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원만한 회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와 이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의 인내심과 같은 정서적 토대가 밑바탕이 되었다.

실질적인 면에서 정보기술 용어가 표준화에 이르게 된 것은, 토의안을 ISO 2382라고 하는 국제 규격으로 한정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남한에

12) 용어 통일안 작성을 위하여 남한에서는 주로 필자가 대표로 활동하였고, 박찬모 교수(포항공대), 진용옥 교수(경희대), 황종성 교수(고려대), 이균하 교수(인하대)가 교체 대표로 참여하였다. 북한에서는 조선컴퓨터센터의 허주 박사(작고)가 대표로, 김정국 연구사가 교체 대표로 참여하였다. 중국에서는 박창화 씨가 대표로, 박상일 씨와 김진용 교수(연변대)가 참여하였다. 최종 합의안에는 필자, 허주 박사 및 박창화 씨가 서명하였다.

13) ISO 2382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규격의 하나로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용어를 규격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기술 용어가 약 30개 분야에 걸쳐 표준화되어 있으며, 그 전체 용어는 2천 개를 넘는다.

서는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의 표준화를 주장한 데 비하여 북한에서 이 규격을 토의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사실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의 표준화가 실질적인 것이긴 하지만, 남과 북의 정보기술 용어의 사용 빈도를 객관적으로 손쉽게 측정할 수도 없고, 또 어느 범위까지를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ISO 2382를 토의안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또한 최종 합의를 위하여 남과 북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에게서 전산용어 순화 사업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용어 공동안 제정 기준'을 작성하여, 양측이 자료를 교환한 이후에는 이를 분석하여 통일안 논의의 토대로 삼았던 것이다. 물론 남한의 경우에 회의 참석자들이 공식적인 대표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었고, 새로운 의견을 수렴할 만한 장치를 운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KS 표준과 전산 용어 순화집 및 각종 전산 용어 사전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기는 하다.

남과 북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용어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 ① 일치안은 용어의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ISO 2382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다.
- ② 고유어를 적극 찾아 쓰는 원칙을 지키며 같은 뜻의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어만 쓴다. 우리말 사전에 없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유어의 어근에 기초한다. 우리말로 완전히 굳어진 한자 용어는 그대로 둔다.
- ③ 영어 어휘를 우리말 발음에 기초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은, 단위를 표시하는 용어들과 약어들에만 적용하며,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면서

우리말로 당장 다듬기 힘든 외래어 용어들은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도록 반드시 우리말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 기준으로서 현행 용어 가운데서 표기가 같은 것, 복수 용어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같을 경우에는 통일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표기가 같다'는 기준에서 각 측의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는 허용하기로 하였다.¹⁴⁾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남북의 정보기술 용어 통일 작업은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용어 순화 작업까지 병행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남과 북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측이 자신들의 용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상대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어떤 용어가 적합한가를 원어의 의미, 사용 범위, 사용 실례, 조어적 타당성, 발음의 적합성 등을 따져서 상대측의 안을 받아들이거나 제3의 용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훗날의 표준화를 기약하면서 복수 표준으로 남겨 두기로 하였다.¹⁵⁾

14) 여기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표기법의 차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표기 관습의 차이: 산술(남)-산수(북), 전환-절환, 단말-말단, 단한-단간, 틈-흠, 건남-건늬. (2) 외래어 표기의 차이: computer: 컴퓨터(남)-콤퓨터(북), program: 프로그램-프로그람, cable: 케이블-까벨, catalogue: 카탈로그-까따로그, page: 페이지-페이, vector: 벡터-벡토르, label: 레이블-레블, block: 블럭-블록. (3) 정서법의 차이: 숫자-수자, 깃발-기발(사잇소리의 사용), 오류-오유, 연결-런결, 배열-배렬, 영-령, 연속-런속, 임계-림계(두음법칙의 차이), 차폐-차페, 은폐-은페(이중모음-단모음 표기)

15) 이렇게 해서 ISO 2382의 용어 2,109개의 표준화를 시도하여, 80% 정도의 용어는 단일안으로 확정하였고, 20% 정도의 용어는 복수 표준화하였다. 2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것 중 한 단어가 표준화되지 못했을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특히 'computer'가 표준화될 경우 그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5. 남북 정보기술 용어 표준화— 그 남은 과제는?

남과 북이 학술 교류를 통해서 『국제표준 정보기술 용어사전』 편찬이라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남북의 정보기술 용어는 동질화 되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힘든 것이 오늘의 형편이다. ICCKL은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의 학술 교류였고, 그 성과물이 국가 규격을 제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이 용어집이 국가 규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국가 표준으로 확정되기만 하면, 논문 집필이나 서적 출판 및 언론 활동 등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표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용어 통일화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남한 내부에 있다. 우리의 정보기술 용어의 통일 작업은 사실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표준 용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국어심의회가 아무 일을 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표준은 ‘시장’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용어 순화를 외면한 채 외래어를 우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더 정확한 의사 전달의 방편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정보기술의 영향은 순수 학문의 영역이나 기술 개발의 분야에 머무르지 않으며, 심지어 유치원이나 동네 노인정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¹⁶⁾

따라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바로 그 ‘시장’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표준화 작업의 진도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외국어가 외래어화하여 의기양양하게 자리잡게 된다. 정보기술 용어는

16) 운영 체제의 도움말을 읽으려 해도 우리는 외국어에 곤혹해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Windows ME>의 도움말 첫 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접하게 된다: 컴퓨터, 인터넷, 전자 메일, 메시징, 팩스, 프로그램, 파일, 폴더, 홈 네트워킹, 게임, 비디오, 스캐닝, 시스템, 키보드, 마우스, 옵션, 리소스, 시스템, 웹 페이지 링크.

그 특성 상 끊임없이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용어의 흐름에 상설 기구가 아니고서는 대응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설 기구에는 각 분야의 용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언어학 전문가가 참여해야만 하며, 순화 작업에 있어서는 전문 용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인지적으로 활용하여 원어의 의미에 부합하며 우리말 용어로도 합리적인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순화 작업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민간 차원의 운동(movement)도 활발하게 일으킬 필요가 있다.

한편 남한과 북한의 용어 통일에 있어서는 기왕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용어를 순화하고 보급하는 공동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ISO 2382의 용어 개정 작업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기술 관련 용어들도 다루어야 한다.

교류의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만일 북한의 관련 기관과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정보기술 관련 웹사이트를 속히 개설하고, 또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부의 인터넷 접속망을 완전히 개방한다면 사실상 남북 간의 통일된 용어 사용의 목적을 좀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대부분 일방향적 의사소통(one-way communication) 중심적인 것이어서 용어 통일을 이루는데 지체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무엇인가 교류할 것이 있어야 하고, 만나서 실시간으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동질성의 회복에 성큼 다가갈 수 있다.¹⁷⁾

17) ICCKL을 통해 남북한의 학자들이 의견 교환을 하는 동안 의사소통에 있어 거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교류가 잦아지면 상대방의 표현과 우리의 용어가 달라도 의사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게 되기까지 한다.

필자는 앞서 정보기술 분야의 용어상 이질성이 다른 분야보다도 심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논리로 필자는 이 분야가 동질성 회복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말하고 싶다. 오랫동안 기술 개발과 학문적 경험이 축적되어 온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 분야의 기술 내용이 극히 최근의 것이고,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탄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용어가 사실상의 표준으로 굳어지기 이전에, 외국어가 그대로 쓰이기 이전에 양쪽에서 협의하여 좋은 용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준다면 좀더 빨리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